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Marital Relations : A Crithical Review and Development of Measurement

상명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정 현 숙

Dep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Sang 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 : Chung, Hyunsook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의 역사적 고찰
Ⅲ. 결혼만족도 연구의 고찰
Ⅳ.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
Ⅴ. 새로운 결혼 만족도 척도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Reserarch on marital satisfaction adjustmentt or qua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studies area of the investigation in the family field. Yet,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with the theory and empirical work in this area, especially in the area of definitional ambiguity, problems of dimensionality, level of analysi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f this work, including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problems that typically have occured with the previous research. Also a section on suggested modific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and a section of suggestion of new marital satisfaction measurement are included.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결혼관계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화한 결혼만족도(혹은 행복도, 적응도, 성공도)[1]의 연구는 결혼 및 가족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이다(Adams, 1988; Mckenry & Price, 1988;

* 본 연구는 1996년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Nye. 1988; Spanier & Lewis, 1980).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부터 1989년 까지 발표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 130편 중에서 결혼적응도나 만족도연구는 총 65편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유영주, 1991), 나머지 연구들도 결혼적응도나 만족도가 중요 독립변인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방법적·이론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용어의 모호성(Adams, 1988; Eshelman, 1981)과 측정도구의 문제점(Norton, 1983; Sabatelli, 1988; Snyder, 1979; Snyder & Smith, 1986; Spanier, 1976)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밖에도 결혼만족도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지위 (Glenn & Weaver, 1978), 부인의 직장경험(Hoffman, 1989), 자녀의 유무(Abott & Broady, 1985; Glenn & McLanahan, 1982; Lucky & Bain, 1970), 결혼연령과 결혼연수(Glenn & Weaver, 1978)등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마다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예: 김득성, 1986, 1989;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합의와 개념에 대한 합의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측정도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분야의 연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재규명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만족도분야 연구의 역사적 고찰, 연구의 중요 문제점과 기존 측정도구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개념화와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의 역사적 고찰

역사적으로 결혼만족도 연구는 가족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때와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그 이후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질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결혼의 적응도(adjustment), 행복도(happiness), 만족도(satisfaction) 등 유사한 용어의 개념들이 50년의 가족연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Burr, 1967; Hicks & Platt, 1970; Nye, 1988; Spanier & Lewis, 1980).

Burgess 와 Cottrell(1939), Terman(1939)의 연구가 이분야 이론적 연구의 효시이며, 이 학자들은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와 개념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Burr, 1967). 초기에 Burgess와 Cottrell은 결혼성공도(marital success)를 개념적으로 독특하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일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후에 Burgess와 Wallin(1953)은 결혼성공도를 이용해 결혼관계의 프로파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위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Burgess와 Wallin에 의해 결혼성공도로 명명된 개념이 Terman에 의해서는 결혼행복도로 명명되었다. Terman은 이 연구에서 부부개개인이 보고한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열거하였으며, 이 연구에 기초해 많은 결혼만족도 척도가 개발되었다(예: Burgess와 Cottrell의 Marital Adjustment Form, Terman의 Marital Happiness Index, Lock과 Wallace의 Short Marital Adjustment Test). 이상과 같이 1960년대 이전에는 부부관계를 여러 차원으로 나눈 연구보다는 부부관계를 일차원적인 일반개념으로 취급한 것이 특징이며(Snyder, 1979), 용어사용의 혼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 이후에는 많은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심리학적인 변인 발견에 촛점을 맞추었으며 이론적인 발전을 위한 관련변인 탐구에도 주력하였다(Hicks & Platt, 1970; Snyder, 1979). 또 한편에서는 부부관계

1)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본 논문의 분석단계에서는 결혼만족도를 행복도, 적응도, 성공도 등의 개념을 이용한 모든 연구를 지칭하여 이용한다.

에서의 의사소통, 경제적 문제, 성관계, 자녀와 아동양육과 관련된 문제 등 특수영역에 촛점을 맞춘 개별적인 연구도 행해졌다. 부부관계에 촛점을 맞춘 연구외에 개인의 특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연구(즉 성격특성, 태도, 성역할 등)도 활발하였다(예: Miller, 1976; Olson & Ryder, 1970; Levinger, 1966; Rollins & Feldman, 1970; Scanzoni, 1975).

그러나 1970년 이후 20년동안에는 이론의 발달과 측정도구를 포함한 연구 방법상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이론의 발달과 이론적모형의 명료화로, 여러 이론에 기초한 중범위 이론(middle-range model)이 발전되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한 Burr(1973), Burr, Leigh와 Constantine (1979), Rollins과 Galligan(1978)의 연구가 이시기에 이루워졌다. Burr와 그 동료들(1979)은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4개의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Rollins와 Galligan(1978)은 자녀의 유무, 나이, 수에 따른 부모로서의 만족에 촛점을 맞추었다. 가족체계이론을 이용해 Marks(1989)는 부부의 자아에 기초한 4 가지의 체계를 중심으로 7가지의 부부관계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의 발전뿐 아니라 많은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도 이시기에 개발되었다(예: Norton, 1983; Roach, Frazier, & Bowen, 1981; Sabatelli, 1984; Schumm, Nichols, Schectman & Grigsby, 1983; Snyder, 1979; Spanier, 1976). 또한 이 시기 동안, 다양한 독립변인을 포함한 모델이 제시되어 성역할이나 성격 등의 개인적인 측면의 변인과(예; Bowen, 1989; Bowen & Orthner, 1983; Davidson & Sollie, 1987; Li & Caldwell, 1987; Schonnesson, 1987), 부부의 여가활동시간(Holman & Jacquart, 1988), 관계에의 몰입(Scanzoni & Arnett, 1987; Swanson & Trahaug, 1985), 부부의 직업(Gaesser & Whitebourne, 1985; Hoffman, 1989; Larson, 1984; Smith, 1985) 등 가족외적 요인과, 사회적 능력(Filsinger, 1980) 등 결혼만족도의 설명 변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간의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를 분석을 통해 Glenn(1990)은 결혼생활의 성공을 예언하는 변인의 발견과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가족행동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연구방법론에서의 커다란 진보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체계적 이론을 이용한 결혼만족도 모델 설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족생활주기(Suitor, 1991)와 자녀에 대한 영향(Katzev, Warner, Accock, 1994; Wineberg, 1994)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은퇴(Myers & Booth, 1996)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결혼만족도를 동성애 부부에게까지 적용하여 관계만족도 등의 개념도 도입되었다 (Chung, 1990; Kurdek, 1994). 또한 Johnson, Amoloza와 Booth(1992)는 결혼만족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는 성격특성 만큼이나 안정된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1984년 이후에 발표되었으며, 종래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 편중된 분석에서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의사소통, 역할관계 등의 태도 변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와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이 시도되었다(대한가정학회, 1990). 그러나 용어의 혼용과 측정도구의 문제 등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혼만족도 관련 이론에 대한 제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 결혼만족도 연구의 고찰

본장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1) 결혼만족도 이론과 관련된 문제점, 2) 용어의 모호성, 3) 결혼만족도 개념의 차원에 대한 문제, 4) 결혼만족도의 분석수준 등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결혼만족도 이론과 관련된 문제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는 소수의 훌륭한 중범위이론을 제외하고는(예: Burr, 1967; Burr et al., 1979; Lewis & Spanier, 1979), 이론적 틀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50년간의 결

혼과 부부관계 연구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Nye (1988)은 가족연구중 1%의 연구만이 일반이론을 이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초기의 연구들은 소수의 가설만을 검증하는 수준의 무이론적인(atheoretical)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Hicks & Platt, 1970; Fincham & Bradbury, 1987).

비록 많은 종류의 중범위이론이나 관점들의 발달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나, 각 이론들은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몇개의 모델로 통합되기도하고 새로운 관심영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Burr 와 동료들(1979)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매우 간결하며 많은 잠재력이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ewis & Spanier, 1979). 그러나 이 이론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명제는 거의 경험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문화적, 역사적 오류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Burr(1973)의 이론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panier & Lewis, 1980).

Lewis와 Spanier(1979)의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귀납적인 이론은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연구이다. Burr와 동료들(1979)에 의하면 지금까지 출판된 결혼의 질에 대한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예: Green & Sporakowski, 1984; Schumm & Burgaighis, 1985; Sapnier & Lewis, 1980, 1981; Thomas & Klever, 1981; Udry, 1981, 1983). 예를 들면, Udry(1983)는 Lewis와 Spanier의 모델에서의 상황변인인 결혼의 대안은 결혼불안정에 대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Marks(1989)는 Lewis와 Spanier가 제안한 결혼의 질과 안정성과의 관계와는 반대로 상대적인 대안이 결혼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상대적 대안은 결혼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부부간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다. 즉, 부부들이 관계에서 협상할 때, 부부각자의 사회·환경적인 자원들이 항상 협상의 과정에 이용되며, 각자가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70년 이래로 개발된 측정도구들의 주된 문제점들은 결혼만족도를 이해하고, 이전의 연구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조작적 정의간의 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Donahue & Ryderm 1982; Sabatelli, 1984; Trost, 1985) 이론과 측정간의 불일치가 여전히 남아 있다. Loevinger(1957)는 심리적인 변인과 심리적인 측정간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타당한 측정도구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측정도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디자인한 개념과 자료의 일치여부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결혼과 가족연구에서 간과되어왔으며 (Miller, Rollins & Thomas, 1982), 이로인해 가족연구에서 이론과 연구와 측정간의 통합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결혼관계에 대한 개념과 측정간에도 적용된다(Sabatelli, 1988). 결국 이러한 측정도구에서의 이론적인 가정과 개념적 분석의 부재 때문에, 결혼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만족도 연구 중 일부는 Lewis 나 Spanier(1979)의 사회교환이론과 Burr와 동료들(1979)의 역할상호작용이론, Burgess와 동료들의 가족이론에 기초한 중범위 이론들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대한가정학회, 1990), 대부분은 뚜렷한 이론적 근거없이 한두개의 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지고 있다.

2. 용어의 모호성(Definitional Ambiguity)

결혼행복도, 적응도, 성공도, 결혼의 질 등으로 명명되는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urr, 1973; Eshleman, 1981; Price & McKenry, 1984; Spanier & Lewis, 1980). Burr(1973)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개념들이 모호하게 정의되는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1) 대부분의 개념들이 주의깊게 정의된 적이 없었으며, (2) 다양한 학자들이 같은 개념을 다양한 용어를 이용하여 연구하였고, (3) 역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비록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명백히 다른 개념들을 같은 개념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4) 많은 개념들이 연구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5) Burgess와 Cottrell(1938)에 의해 소개된 다차원적인 개념과 조작화가 너무 다차원적이고 애매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결혼의 성공에 대한 준거들이 너무 이상적인 것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론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성공한 결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이끌게 하였다.…(p.41)

예를 들면, Terman(1939)은 Burgess(1938)가 사용한 가족의 현상을 개념화하면서 Burgess가 명명한 결혼의 성공도(sucess)라는 용어 대신에 결혼 행복도(happiness)로 명명하였다. 또한 많은 척도들이 Burgess와 Cottrell(1939)의 이론적 개념을 이용해 거의 같은 문항으로 제작되었으나 결혼의 행복도나 성공도라는 용어대신 결혼적응도(adjustment) 척도로 명명되었다. 특히 Locke에 의해 1958년 제작된 척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Burgess의 척도를 줄인것에 지나지 않으나 결혼적응도로 명명되었다. 이후 Sapnier(1976)에 의해 개발된 Dyadic Adjustment Scale(DAS)은 Terman(1939)과 Locke와 동료들(Locke, 1947; Locke & Wallace, 1959; Lock & Williamson, 1958)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동일 문항을 정비한 것으로 적응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된 척도 중의 하나이다.

용어와 측정의 혼란과 함께, 연구자들은 분석의 단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만족도는 관계에서의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생각(impression)을 나타낸다(Roach, et al., 1981; Sabatelli, 1988). 그러므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의 지각이다. 그러나 결혼 적응도는 조화로운 결혼관계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process)을 의미하므로(Spanier, 1976; Sabatelli, 1988), 분석의 단위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결혼의 질(quality)은 결혼만족도와 비슷하게 개인의 결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Fincham & Bradbury, 1987; Norton, 1983). 또한 결혼에의 몰입도 결혼의 질의 하위 영역이나 유사개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예, Swanson & Trahaug, 1985; Scanzoni & Arnett, 1987).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만족 외에 결혼적응이나 결혼의 질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대한가정학회, 1990). 즉, 비슷한 개념들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조작화 없이 혼용하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결혼만족도와 결혼적응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Pittman & Lloyd, 1988; Johnson et al., 1992). 그러나 개인적인 지각으로의 만족도와 결혼적응은 분석의 단위가 개인과 부부로 독특한 두개의 개념으로 분리된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만족도 개념의 차원에 대한 문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비판점 중 하나는 결혼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결혼만족도의 정확한 개념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위영역이나 구성요인에 대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단일차원 척도와 문항수는 〈표 1〉과 같으며, 다차원 척도에 대한 정보와 하위영역은 〈표 2〉와 같다.

〈표 1〉과 〈표 2〉에 의하면 결혼생활과 관련된 구성 변인은 두가지로 개념화된다. 한가지 방법은 결혼만족이나 성공을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단일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표 1〉. 결혼생활에서의 일치정도나 갈등해결방안, 갈등의 정도, 공유된 활동의 정도, 개인적인 평가로서의 만족도, 자신이 인식하는 결혼의 안정성 등과 관련된 단일개념들이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결혼관계를 다차원 혹은 다수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분석하며 각 하위요인들의 결혼의 성공이나 만족, 혹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프로파일로 그리는 방법이다 〈표 2〉. 또한 다차원 척도에서는 각기 다른 하위요인이나 차원에 의해 측정되는 영역의 점수의 합으로도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Spanier (1976)의 DAS는 부부간의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해 총점으로도 이용되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결혼관계에서의 개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Snyder(1983)는 전반적인 결혼의 고통정도(distress)를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측정치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척도에 결혼의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10개의 독립변인을 제안하고 있다.

Hick과 Platt(1970)의 1960년대의 10년간의 결혼만족도 관련 자료의 문헌고찰에 의하면 이시기에는 단일차원의 척도가 지배적이었다. 단일차원 척도의 장점은 결혼생활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서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Burr, 1967). 또한 단일화된 점수는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표현해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Bradbury & Fincham, 1987; Fincham & Bradbury, 1987; Jacobson, 1985). 그러나 단일척도는 결혼에서의 다양성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여러 결혼영역의 다양성을 묶어 하나의 일반적인 결혼현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비록 다차원척도가 결혼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차원척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Spanier(1976)의 DAS은 현존하는 결혼적응도 척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척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Burnett, 1987), 결혼과 가족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척도이다(Sabatelli, 1988). 그러나 DAS 척도를 재검증한 Carmines와 Zeller(1979), Sharpley와 Cross(1982)는 모든 변인이 한요인에 묶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Spanier와 Thompson(1982)은 DAS와 같은 하위영역은 발견하였으나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Marital Satisfaction Index(MSI: Snyder, 1983)는 이전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결혼만족도 척도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다(Burnett, 1987). 그러나 MSI와 하위척도인 Global distress scale과 Affective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Time Together는 척도간 상관이 높아 척도의 차원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차원간의 독특성이 의심되고 있다 (Jacob & Tennenbaum, 1988; Sabatelli, 1988). 이밖에도 Johnson과 동료들(1986)은 여러 결혼만족도 하위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긍정적, 부정적인 두 개의 결혼만족도 하위요인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하위차원을 묶는 결혼의 질 척도들은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결혼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차원척도의 또다른 문제점은 하위개념들의 변량들이 같은 내용을 반복 측정하는 것으로(Fibcham & Bradbury, 1987; Norton, 1983), 이러한 경향은 거의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조작화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나 이론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문항들의 중복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들의 정의가 중복되는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결혼생활에 대한 다차원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단일점수로 제시되었을 때는 단일척도의 개념과 비교했을 때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과 조작적인 개념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Johnson et al., 1986). 또한 다차원척도의 이용은 결혼만족도의 하위차원들과, 성이나, 결혼기간, 자녀의 유무 등의 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척도들의 타당화 작업이 있었으나 단일차원과 다차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인수와 유영주(1986)는 Roach와 동료들(1981)의 MSS의 타당화작업을 통해 MSS가 한국에서도 적용가능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척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Roach와 동료들의 제안과는 달리 6개의 하위요인이 발견되었으며, 요인들의 설명변량도 51%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요인들은 Varimax 회전을 통해 요인간의 상관을 0으로 고정하였으나

〈표 1〉 결혼만족도관련 단일차원 척도의 종류와 특징[1]

저 자	측정개념	척도명	문항수
Azrin, Naster, Jones(1973)	Happiness*	Marital Happiness Scale	10
Bahr, Chappel, Leigh(1983)	Quality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10
Beier, Sternberg(1987)	Unhappiness	Beier-Sternberg Discord Questionnaire Questionnaire	10
Bernard(1933)	Success	Success in Marriage	100
Blood & Wolfe(1960)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Index	4
Buunk(1987)	Satisfaction	Relational Interaction Satisfaction Scale	25
Dyer(1970)	Adjustment	Marital Agreement & Adjustment Measures[2]	13
Eshelman(1965)	Integration	Marital Integration Mean	10
Hamilton(1929)	Satisfaction	Marital Adjustment Test	13
Hawkins & Johnson(1969)	Satisfaction	Current Marital Satisfaction Test	4
Hendrick(1988)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Assessment Scale	7
Hudson(1982)	Satisfaction	Index of Marital Satisfaction[3]	25
Inselberg(1961)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entence Completions	13
Johnson, et al.(1986)	Satisfaction	Nebraska Scale of Marital Happiness	11
Kelso et al.(1984)	Conflict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13
Kirkpatrick(1973)	Adjustment	Family Interests Scale	6
Locke(1951)	Adjustment	Marital Adjustment Test[4]	29
Miller(1982)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cale	8
Norton(1983)	Quality	Quality Marriage Index	6
Nye & MacDougall(1959)	Adjustment	Nye-MacDougall Marital Adjustment Scale	9
Ort(1950)	Role conflict & Satisfaction	Marital Role Conflict Scale	22
Peterman et al.(1974)	Quality	Relationship Quality Index[5]	5
Renne(1970)	Satisfaction	Index of Marital Satisfaction	6
Roach et al.(1981)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cale	73
Rust et al(1986)	Satisfaction	The Golombok-Rust Inventory of Marital State	28
Sabatelli(1984)	Complaint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32
Safilios-Rothchild(1967)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Index[2]	8
Safilios-Rothchild(1968)	Quality &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with Mentally Ill Partner	11
Schumm et al.(1981)	Satisfaction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3
Sheinbein(1974)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Direct-Report[6]	1
Terman(1939)	Happiness	Marital Happiness Index	80
White(1970)	Agreement	Marriage scale	21
Williams(1979)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Time Lines[7]	1

* 〈표 1, 2〉에서 번역으로 인한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척도의 중요측정개념과 척도명은 영어 표기 했음.

1. 척도들은 Straus & Brown(1978)과 Touliatos, Perlmutter, & Straus(1989)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표 1〉은 Chung(1990)의 pp. 47-49, 〈표 2〉는 pp. 50-53에서 인용. 2. 부인용 척도 3. 임상용 척도에만 포함됨. 4. Burgess-Cottrell Marriage Adjustment Form과 Terman의 척도에서 2문항 이용. 5. 이성부부간의 관계만 측정 6. 부부가 별도로 1점에서 5점 척도에 응답한 뒤, 만족과 불만족 상황을 서술함. 7.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4번씩 부부 각자가 응답을 기술하는 행동분석 방법

〈표 2〉 결혼만족도 관련 다차원척도의 종류와 하위영역

저 자	측정개념	척도명 및 하위영역
Barrett-Lennard(1962)[1]	Relationship	Relationship Inventory 관심수준/애타적 이해/일치/무조건적 관심/Willingness to be known
Bowen & Orthner(1983)	Quality	Marital Quality Scale 애정표현/여가만족/결혼만족/의사소통이해/일반적 결혼에 대한 일치
Bowerman(1957)	Adjustment	Bowerman Marital Adjustment Scales 가계재정/여가/친척관계/친구관계/종교적 지향과 실제/성관계 가사 책임감/인생의 철학/자녀양육/결혼에 대한 일반적 평가
Burgess(1984)	Success	A Marriage Prediction Schedule Psychogenic/Cultural impress/ SES/경제/애정 및 반응패턴
Burgess(1984)	Adjustment Success	A Marriage Adjustment Form 개인적 만족/불일치 빈도/불행감의 근원
Burr(1970)[2]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Indexes 재정관리/사회활동/동료애/자녀와의 관계/성관계/부부가사일 수행
Fink, Skipper, Hellenback(1968)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cale 동료애/사회적 지위/권력/이해/애정/자존감/성
Gilford & Bengston(1979)	Satisfaction	Two-Factor Marital Satisfaction Scale Positive interaction/ Negative sentiment
Honeycutt(1986)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arital Issues & Topics 애정적 교환/재정관리/성/약물복용과 외도
Locke & Wallace(1953)[3]	Adjustment	Short Marital-Adjustment Test 적응/갈등해결/응집성/의사소통
Locke & Williamson(1958)[4]	Adjustment	Marital Adjustment Test 동료애/Accommodation/일치/정서적.애정적 적응 Euphoria or halo effect/Masculine interpretation of wife
Manson & Lerner(1970)[5]	Adjustment	Marriage Adjustment Scale 가족관계/우세/미숙성/성/자녀/흥미/신체적 능력/신경증/조화
Olson, Fournier, & Druckman (1982)	Relationship Happiness	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 Happiness 의사소통/갈등해결/재정관리/결혼만족/평등적역할/사회적바람직성 여가활동/ 성관계/ 자녀와 결혼/ 가족과 친구/종교적 지향/성격
Orden & Bradburn(1968)	Adjustment	Marriage Adjustment Balance Marriage sociability/ 동료애/ 긴장
Rofe (1988)[6]	Satisfaction	Marital Happiness Scale 전반적결혼만족과 애정/결혼의 불일치/성적 만족/ 신체외모
Spanier (1976)[7]	Adjustment	Dyadic Adjustment Scale 일치/ 만족/ 응집/ 애정적 표현
Snyder(1979)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전통성/전반적고통/역할/성적인불만/자녀불만/의사소통/시간보내기 경제에 대한 불일치/자녀양육 갈등 Family history of distress/ Disaffection[8]/ Disharmony[8]
Starr(1985)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Survey 의사소통의 개방성/성/Management functions/관계에의 몰입
Stinnett, Collins, Montgmery(1970)[9]	Satisfaction	Marital Need Satisfaction Scale 사랑/과거 경험의공유/의사소통/개인적 성취/존경/인생의 의미 발견

1. Schumm, Jurich, & Bollman (1981)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개정과정에서 the willingness-to-be known 문항과 unconditionality-of-regard 문항은 결혼생활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삭제했음. 2.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으로 이용됨. 3. Kimmel 과 Van Der Veen(1974)의 결혼적응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Sexual congeniality와 Compatibility의 두개의 하위요인을 발견. 4. 각 하위요인의 총점이 결혼적응도점수로 이용됨. 5. 각 하위영역의 개별점수가 산출됨: 체크한 개별하위영역의 부인점수, 남편점수, 그리고 부부 점수를 계산. 이 세점수의 합이 전체평가 점수로 이용됨 6. 전체 적응척도는 긍정적인 점수에서 부정적인 점수의 차로 계산. 7.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개별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하위영역점수의 합으로도 이용할 수 있음. 8. Snyder는 상담집단과 문제가 있는 부부의 경우 두 영역을 첨가시킴. 9. 60세 이상의 노년기부부들의 만족의 정도를 측정함. 각 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 만족도점수를 계산함.

신뢰도 계수의 산출에서는 단일요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에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득성(1986)은 Spanier(1976)의 DAS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4개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으며, 불행한 집단과 행복한 집단간의 변별도가 높은 척도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하위 척도의 문항은 남편과 아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의해 4요인이 남편은 33.4%, 아내는 33.9%의 설명변량만을 보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김득성(1989)은 Schumm과 동료들의 KMSS의 세문항이 실시하기 간단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라고 보고하였다.

4. 결혼만족도의 분석수준(The level of Analysis)

가족학자들은 이론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가족관계를 연구할 때 여러 가족원들을 연구에 포함시킬 것을 계속 주장하여 왔다(McKenry & Price, 1984; Straus, 1964; Thompson & Walker, 1982). 가족이론도 양방관계나 삼자관계로 가족현상을 개념화하여왔으나, 측정도구들은 여전히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 측정수준의 중요성은 Green과Kolevzon(1986)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예측하기 위하여 가족내의 기능을 나타내는 다양한 개인적, 양방적, 삼자적 관계의 특징들을 측정하였다. 결혼만족과 부모자녀관계 등 양방적 관계를 측정하는 변인들이 정서적인 성숙, 자존감, 불안감 등의 개인적인 변수나 가족의 위계적인 서열 등의 삼자관계적 변인보다 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 잘 예측하는 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부부 두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 만으로는 양방적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 두명의 부부가 연구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인들을 간과할 수도 있다(Thompson & Walker, 1982). 그러므로 정보제공자의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두사람과 이들의 관계에서의 다양한 특징들을 이해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러나 관계의 이해뿐아니라 이론적 방법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두명의 배우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Ⅳ.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이론의 체계적 분석결과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명확한 개념적인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Blalock(1982)의 지적과 같이 이론적인 정교함이 통계적 방법에서의 진보나 측정의 정교함, 또는 실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방법적인 진보보다 앞서야만 한다. 개념적인 정교함이 이루어진다면 정교한 통계적 기법인 LISREL (Joreskog & Sorbin, 1989)과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이론과 연구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현대의 변화된 사회상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좀더 전체적이며, 이전의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념의 명료화와 차원, 분석의 단위는 결혼만족도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만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미래의 연구에서 포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념의 명료화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들을 하나의 일반적인 정의로 규정하는 것이 이 분야의 가장 큰 기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조작적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용어의 혼란과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연구에서는 결혼의 만족도(satisfaction)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족도의 개념은 Hawkins(1968)의 정의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Hawkins는 결혼만족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결혼에서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에 의해 경험되는 불행감(unhappiness), 만족감(satisfaction), 기쁨(pleasure) 등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 변인은 아주 만족에서 부터 아주 불행함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명확히 태도 변인이며 배우자 개개인의 속성이다…"(p. 648)

이러한 개념적 정의로 결혼만족도를 부부관계에서의 결과 변수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결혼만족도 개념을 수용함으로서 몇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인의 복지와 만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관계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부간의 적응이나 결혼의 안정성보다 점차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을 Nye(1988)는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결혼생활 전 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이혼률의 증가 추세나, 이혼의 원인이 점차 시집이나 환경적인 제약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는 개인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의 인상으로의 개념화는 현대의 변화된 부부관계에 가장 적합하고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개념은 관계적인 속성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단일차원의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서의 결혼만족도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훌륭한 결혼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가 배제되고 편파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이다. 즉, 무엇이 훌륭한 결혼생활이며, 질적인 결혼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을 함께 보내기'가 어떤 부부에게는 둘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떤 부부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결혼의 척도에 이 문항이 포함되었을 때는 연구자의 가치와 편견이 포함되어 부부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한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서의 단일차원의 만족도의 개념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을 알아내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Olson과 동료들(1983)에 의하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행복감이나 기분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과 변인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부부 개인의 만족도는 부부관계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평가의 요약이며, 이 평가는 배우자 각자의 개인적 지각에 기초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만족도의 척도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부부간의 갈등의 정도, 성관계의 특징과는 내용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DAS의 네 요인의 합인 전체점수는 결혼만족도와 애정적 표현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혼만족도의 측정이 독립변인의 변량의 많은 부분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결혼만족도의 차원

단일차원의 결혼만족도척도가 다차원 척도보다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 몇가지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우선, Fincham 과 Bradbury(1987)가 지적하였듯이 다차원적인 척도는 임상분야에서 결혼이나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효율적이며, 결혼에 대한 총체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진 단일차원의 척도는 결혼생활에서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에서의 문제점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일차원의 척도는 최근에 제안된 다양한 결혼관계모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의 추세와도 일관된다. 결혼의 만족도나 질, 적응의 결정요인을 발견하려는 많은 연구에서, 이전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하위차원들이었던 많은 변수들이 실제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Greenblat, 1983), 여가활동(Bokemeier & Mauer, 1983; Holman & Jacquart, 1989),

관계에 대한 몰입(Beach & Broderick, 1982), 종교심(Heaton, 1984; Filsinger & Wilson, 1982; Wilson & Filsinger, 1982)등은 종속변인의 하위차원이 아니라 결혼만족도나 적응도, 혹은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규정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일차원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개념화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결혼에의 몰입이 결혼만족도의 하위차원이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결혼관계에 강한 몰입을 나타내야한다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동료애나 평등적인 성역할 등의 차원을 포함시키는 것도 결혼관계에서의 한 유형만을 강조하는 오류와 함께, 성공한 결혼을 규정하는데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일차원의 척도가 이론적인 측면 뿐아니라 조작적 정의 차원에서,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결혼의 불만이나, 결혼의 질, 만족도, 행복도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일반적인 차원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개념화로 연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즉, 다양한 하위차원을 바탕으로 결혼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결혼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단일차원의 척도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표 1)에서와 같이 단일차원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이나 문항의 수도 결혼의 질 척도마다 매우 다양하므로 다양한 접근법의 효능을 논의하기보다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분석의 단위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 중 하나는 부부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논의이다. 같은 질문에 대한 두사람의 인식의 차이는 가족연구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분야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서의 응답의 차이는 두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가지 이유는 응답자들의 체계적인 성차의 반영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예; Johnson et al., 1986; Holman & Jacquart, 1988; Roac et al., 1981), 이는 두가지 관점의 차이 때문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연구들의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측정도구의 문제점으로 본다.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이 같은 문항에 다르게 응답한다면 둘간의 차이를 '오차변량'으로 볼수 있다. 반대로 개인적인 변인에 대한 부부간의 응답의 차이는 연구자에 의해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실제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Miller et al., 1982). 따라서 연구자가 개인 응답자의 속성으로서의 결혼의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할 때는 부부간의 응답의 차이를 오차변량이 아닌 관계에 대한 인식의 '실제의 차이'로 해석해야한다. 즉,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보고(평가)는 결혼에 대한 각 배우자의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점수로 취급해야하며, 부부간의 총점을 계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경우 분석의 단위는 관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되며, 부부가 함께 연구설계에 포함되어야한다.

경험적인 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지지한다. Madden (1982)과 Schaupp(1986)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활동에 대한 통제는 남편보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Chung (199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의 속성인 의사소통과 여가활동은 남편보다 부인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의 속성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Kimmel 과 Van Der Veen(1974)도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인과 남편의 요인구조가 많은 공통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행복과 긴장이 없음, 함께함 등 친밀감을 규정하는 문항의 군집들이 남편의 성적인 일치(sexual congeniality) 요인에 높게 부하된 반면 이 문항들이 부인의 양립성(compatibility) 요인에 높게 부하되었다.

또한 부부들이 실제로 결혼관계를 다르게 개념화

하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녀간의 결혼만족도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서동인, 정현숙, 1994). 그러므로 부부 각자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남녀의 인식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V. 새로운 결혼만족도 척도의 모색

부부들이 결혼관계를 다르게 개념화한다고 해서 남녀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문항을 다르게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포함 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결혼만족도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며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간의 인식의 차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문항으로 구성하여야하며 결혼관계의 다른 요인들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척도가 바람직한 결혼만족도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척도로 Schumm과 동료들의 KMSS가 적당하다고 보여진다. KMSS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개념적 명확성과 척도의 차원과 분석의 단위에 대한 논의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 척도가 개인의 지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혼생활 전반에서의 개인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문항 자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KMSS는 세문항으로 실시하기 간단하며 단일차원의 척도로 척도 개발자가 다양한 평가를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KMSS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한 김득성(1989)의 연구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고되었다. 실제로 KMSS를 이용한 서동인·정현숙(1993, 1994), 정현숙(1996)의 연구에서 KMSS는 .92~.95의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KMSS는 부부가 중심인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척도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첨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회로 부모-자녀관계가 특히 중요시 되었으며, 여성의 역할도 아내의 위치보다는 어머니의 지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로 1994년 KBS1-TV의 우리나라 부부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부들이 서로가 가장 미운 때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때(26.5%)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러한 점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KMSS를 변형하여 RKMSS(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제안하고자 한다. RKMSS는 기존의 KMSS 세문항에다 "당신은 아버지(어머니)로서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한문항을 첨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된다.

〈표 3〉 KMSS와 RKMSS의 상관계수

척 도	1	2	3	4
1. KMSS(남)	1.00			
2. KMSS(여)	.41	1.00		
3. RKMSS*(남)	.92	.43	1.00	
4. RKMSS*(여)	.41	.94	.45	1.00

* RKMSS(Revised form of KMSS)

서동인, 정현숙(1993)[2]의 자료를 이용하여 4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3〉과 같이 기존의 척도와는 .92, .94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상관의 정도는 .41~.45로 개인적인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된 점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RKMSS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아내척도는 왜도가 -.72, 첨도가 .59이며, 정상성을 가정하는 Sapiro-Wilk의 W = .96($p < .001$)으로 부적편포이다. 남편의 척도도 왜도가 -1.06, 첨도가 2.26이며, W = .94($p < .001$)로 역시 부적편포를 나타내고 있어 결혼한 집단, 즉 전집의 양상을 나타내는 타당한 척도로

2) 자세한 분석자료에 대한 논의는 서동인, 정현숙(1993)을 참조할 것.

〈표 4〉 KMSS와 RKMSS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KMSS(남)		RKMSS(남)		KMSS(여)		RKMSS(여)	
	b	β	b	β	b	β	b	β
수입	2.46	.05	2.57	.04	4.27	.09	4.58	.08
결혼기간	0.00	.00	-.06	.00	-1.40	-.09	-.62	-.03
재정관리	8.32	.03	8.75	.02	-71.4	-.24***	-.91	-.25***
성	47.77	.20***	45.93	.16*	63.53	-.24***	83.48	.25***
자녀양육	37.60	.18***	57.43	.22***	59.43	.37***	90.45	.45***
의사소통	52.32	.19***	66.46	.20***	53.52	.21***	51.15	.16***
우울증	-4.54	-.22***	-6.08	-.24***	-3.54	-.17***	-3.82	-.15***
절편	-451.7		-525.8		-239.77		-.319.33	
R^2	.37***		.40***		.46***		.49***	

* p 〈 .05 ** p 〈 .01 *** p 〈 .001

볼 수 있다.

RKMSS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가 있는 26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KMSS와 RKMSS를 종속변인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KMSS 보다 RKMSS는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하나, 관련변인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KMSS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측정에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서의 결혼만족도가 개념적으로 타당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연구자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으며, 일차원 척도이므로 측정하기 쉽고, 다른 가족관계적인 변인과 변량이 혼합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RKMSS가 우리나라 실정에 타당한 결혼만족도 척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3]

1) 김득성(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I).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2. 55-73.

2)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85-94.

3) 대한가정학회편(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경향 Ⅲ. 서울: 교문사.

4) 서동인, 정현숙(1993). 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학논집, 6, 1-36.

5) 정현숙(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51-60.

6) 유영주(1991). 가족학 연구의 역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한 연구의 이론적 접근(pp. 1-22). 서울: 교문사.

7) Chung, H.(1990). *An empirical test of a heterosexual couples' relationship satisfaction.*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8) Gleen, N.(1991). Qual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51-164.

9) Johnson, D., Amoloza, T., & Booth, A.(1992). Stability and development changes in marital quality: A three-wave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82-594.

10) Katzev, A., Warner, R., & Acock, A.(1994). Girls or boys? Relationship of child gender to marital

3) 1990년 이전 인용한 측정도구와 관련 연구의 참고문헌을 원하는 분은 연구자에게 연락바람.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89-100.

11) Kurdek, L.(1994).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05-734.

12) Suitor, J.(1991). Marital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cross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21-230.

13) Wineberg, H.(1994). Marital reconcili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couples are successfu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0-88.